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④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북경도서관 구관에 위치한 문진 조판박물관은 2009년 8월 31일 개관한 사립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자는 시인 화가 북디자이나 출판가로 알려진 강심(姜尋)선생이다. 그는 이 박물관을 인쇄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해 관람객들에게 중국문화를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 설립했다. 이 박물관은 국가도서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설립됐다. 건물과 설립 비용은 국가가 지원했고, 자료는 모두 강심 선생의 개인소장품이다.

한국에는 국가등록 박물관이 800여 곳이 있다.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립박물관이다. 사립박물관 가운데에는 소장품의 자료가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문진 조판박물관의 사례와 같이 국가와 사립박물관의 협력을 의해 세계적인 자료를 활용 전시 교육하는 곳은 드물다.

문진 조판박물관은 강심 관장의 수집에 대한 열정과 주변 학자들과의 두터운 관계,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곳의 전시품 수집서부터 개관 후까지 박물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중국 정부의 발 빠른 문화에 대한 투자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판박물관 전시는 책이 출판된 연도에 따라 출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장품으로는 유명한 장서가 '장여조'가 소장하고 있던 책판이다. 이곳에는 장여조의 책판과 그와 관련한 인정을 함께 소장 중이다. 영락제 때 황궁에서 만들어진 궁중판도 200여 장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은 국가도서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21년에 축조된 건물은 과거 식당으로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것이다. 내부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중국불상특별전에 전시된 관음상

시 기획은 모두 박물관장이 담당했고, 전시실 내부에 가장 돋보이는 전시공간은 전시실 제일 안쪽 벽 전체를 전시장으로 사용해 전시와 수장을 겸하고 있는 공간이다. 원래 박물관 건물이 식당 건물이다 보니 천장이 높고 보통 건물의 2층 높이에 해당하고 있는 천장 끝까지 모두 전시장 겸 수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맞은 편에는 눈높이에 맞추어 2층 높이의 전시까지 감상할 수 있게 철 계단을 사용하여 올라가면 전방대 겸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 내부는 사무공간과 다른 기타 공간을 포함하여 총 100여 평되는 크지 않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조판박물관이 속한 국립북경도서관 구관에는 고서를 모아놓고 있는 고전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 이동 작업으로 인해 일행은 중국 도서관의 세계적인 소장품을 볼 수 없었다.

이를 대신해 답사단은 고전실 1층 문화상품코너에서 북경 도서관이 자랑하는 고서의 변상도만 모아 놓은 자료집을 구하는 것으로 북경의 둘째 날 학술 답사 일정을 마쳤다.

북경 수도 도서관에서 만난 '적사경'

3일째 되는 날, 일행은 북경 수도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수도도서관에는 중국 고판화 학자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심해 선생이 부관장으로 있는 곳이다. 주심해 선생은 답사단을 반갑게 맞으며 전시실로 안내했다. 2006년에 주심해 선생을 만나기 위해 수도도서관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필자는 17년 전 고판화 목판의 조형성에 눈을 뜨면서, 중국 고판화를 수집이 시작되었고, 좋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고판화에 대해 장남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공부해 오다, 주심해 선생이 중국에서 고판화 학자로 저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심해 선생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어렵게 북경 수도도서관 부관장으로 재직한다는 것을 알고, 중국의 조선족 가이드를 통해, 2006년 수도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주심해 부관장의 바쁜 일정으로 첫 대면은 20여 분에 불과했다.

필자는 그때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 1주일 이상 북경에 머물 예정이니 여유 있을 때 식사라도 할 것을 간청했고 주 부관장은 이를 수락했다.

필자는 주심해 부관장과 직계제자인, 마문대 선생과 만난 자리에서 고판화박물관

'가루라' 아름답게 새겨진 '적사경' 변상도 친견



북경 수도 도서관에서 친견한 '적사경' 변상도. 송말원초(1231~1322)에 제작된 이 변상도는 진승이 그림을 그리고 진녕이 판각했으며, 티베트풍의 도상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본존을 두광 뒷쪽에 가르라(세)가 판각된 것이 특징이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문진 조판박물관 진열장. 북경도서관 구관에 2009년 강심관장이 개관했다.

'적사경'은 소주 적사에서 송말원초 91년간 만든 장경 고판화 박물관 소장품 다수, 중국 국가 도서관 독록 기재

의 유물을 소개했고, 그 때부터 교류활동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마음의 문을 연 주심해 부관장의 소개로 조판박물관 강심 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고판화 관련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필자는 이때의 자신감으로 중국 민간미술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중앙미술학원 보존년 교수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2006년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최초로 열린 한·중 국제 고판화 학술대회로 연결돼 주심해 부관장과 보존년 교수가 고판화박물관을 찾아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관련 자료들이 세계적인 컬렉션임을 인증 받는 계기가 됐다.

일행이 찾은 수도도서관 고전실에는 고서가 50여 만권 있다. 이 가운데 송원시대 것이 40여 만권이라고 했다.

답사단은 수도도서관의 대표적인 고판화 관련 자료를 보여 줄 것을 간청했고, 수도도서관에서는 송말 원초 만들어진 '적사경' 변상도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심해 부관장은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 후 퇴원한 지 얼마 안됐 요양이 필요함에도 직접 나와 '적사경' 변상도의 주요 부분을 열의를 다해 설명했다.

<적사경(積砂藏)>은 남송 소정 4년(1231)에 소주 적사의 영성원에서 설립된 경방에서 자본을 모금하여 만든 대장경이다. 원대 지지 2년(1322)에 끝난 불사는 완성하기까지 91년이 걸렸다. 변상도는 진승(陳昇)이 그림을 그리고, 진녕(陳寧)이 판각한 것으로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아, 티베트풍의 도상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도판은 대형 본존불을 중심으로 다양한 군상들이 여백 없이 화면에 채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적사경> 변상도는 일반적인 중국 변상도와 다르게 본존불의 두광과 신광 뒤쪽에는 인도 네팔 등지의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르라의 형상이 아름답게 판각돼 있다. 이같은 인도 티베트풍 도상이 주류이면서도 본존불의 광배 좌우로 일월성신을 표시한 것이나, 중국 도교의 도사풍의 인물이 표현되는 등 중국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

주심해 부관장은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인 명성화13년(1472)간 <불정심다라니경>을 포함한 다수의 소장품이 중국 국가도서관 독록에 실려 2달 후엔 발간 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2년 전 한양대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답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심해 부관장은 자신이 중국국가 도서관 불교문화 독록 편찬위원회에 명칭 시대 위원으로 위촉됐으면서 고판화박물관의 중국 소장품 중 뛰어난 작품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주심해 부관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는 순간 17년간 고판화를 수집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이 기뻐했다.

자극성 인쇄기관 무영전 답사 또 헛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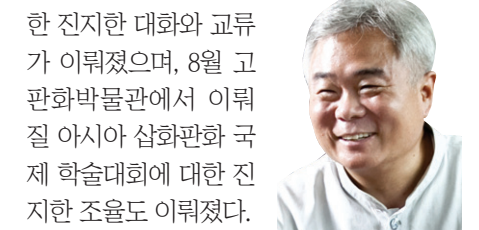
필자는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 답사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영전을 방문하기 위해 자극성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일행은 2011년 재개관한 중국 국가박물관을 방문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가박물관에서는 한국에 영향을 크게 끼쳤던 중국 고대불상 특별전과 청동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일정에 없던 코스라 특별전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청대 황실 인쇄기관인 무영전은 강희 19년(1680)에 수서처(修書處)를 설립하고 편수와 교정을 담당하는 관원과 글자를 쓰고 판하는 장인들을 모아 전문적으로 출판 작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무영전 서적은 각 판이 비교적 정확하고 최상품의 종이와 먹 사용했고, 글자체가 매끄럽고 판식이 또

렷하고 장정이 단정하기로 유명했다. 무영전 학술답사를 위해 그 동안 만났던 중국 학자들과 통해 방문을 시도했으나, 모두 난색을 표했다.

북경 한국문화원을 통해 무영전과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열릴 듯 했던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무영전 도서관 부 연구원인 웅 선생의 안내로 무영전 입구에서 설명을 듣고 현수막 없이 기념촬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웅 선생으로부터 다음 번 학술답사에는 꼭 개방해 줄 것을 약속받으면서 답사단은 발걸음을 자극성으로 옮겼다.

학술교류활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학자들과의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찬이다. 이번 답사에도 중국학자들과의 만찬을 위해 청나라 때 제후들이 살던 왕부를 개조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왕부 식당에 만찬자리를 마련했다. 만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교류가 이뤄졌으며, 8월 고판화박물관에서 이뤄질 아시아 삼화문화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진지한 조율도 이뤄졌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형진·박도화(고판화박물관)

음마니반에 흥 열꽃 울장대 & 마니차

이제 입춘일부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돌려 주십시오!

사업재수운, 금전재물운을 불러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총명하게 돌려줍니다

팔만대장경을 넣어둔 책장을 의미하는 울장대, 또는 법률대라고도 하는 이 법구는 한번 돌려 때마다 경문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큰 공덕이 쌓이고, 업장 소멸이 되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머무는 장소의 나쁜 운을 몰아내고 좋은 호운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이 울장대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영업장소, 기수원현, 가정의 거실, 학생공부방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울장대는 1.5v 소형건전지 내장하여 돌리고, 연꽃 마니차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태양열로도 돌며, 건전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앞에 놓으면 자동으로 돌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출입원래재수가 원활해져서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됩니다.

[사실에 신도 개인인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울장대 사이즈 | 높이 17×둘레 12cm / 가격 | 98,000원
 마니차 사이즈 | 높이 15×둘레 10cm / 가격 | 68,000원(사할스님20%할인)
 제조원 | 티베트 / 수입처 | 풍다원

입금 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

세계 최초 출현 금강저 108 염주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민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 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높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일제 모르게 지은 전생 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집터나 가게터가 신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듬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사할스님 20% 할인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전화 : 010-4233-7099